

# 제11회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2명  
2018년 5월 27일 경남 창원시 엘가커피에서

## 1. 에이브러햄 링컨: 제1차 취임사(1861)

-보통 주가 연방보다 앞서 존재했다고 생각되지만, 아래의 인용에서 링컨은 미국은 하나의 미국이라는 뜻으로 얘기했으며,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뜻에서 서로 의미가 통한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제1차 취임연설에서, 연방은 주보다 오래되었으며, 연방 각 주간의 협약은 의무적이며,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천명했다.

-만약 전체가 부분의 합이라 하더라도 일부가 전체에 반하는 것이 수용될 수는 없다. 합의할 때 전부가 동의했으니 취소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이 정규 국가가 아니라 단지 계약과 같은 성격을 띤 주들의 연합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으로서의 연합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 전부가 아닌 일부에 의해 평온하게 해체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그것을 어길 수도, 말하자면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하는 데는 당사자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양극단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무정부 상태보다 절대왕정이 낫다. 그 사이에 분명 다수가 동의할만한 보다 나은 체제가 있을 테지만, 양극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

이탈의 중심 개념이 곧 무정부 상태의 본질임은 명백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형태의 사회운동이 무정부 성태나 전체주의로 치닫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헌법상의 억제와 제약에 의해 행동이 한정되고 여론과 국민 감정의 신중한 변화에 따라 언제나 민감하게 움직이는 다수야말로 자유 국민의 유일한 참된 주권자입니다. 그런 다수를 배척하는 자는 누구든 필연적으로 무정부 성태나 전체주의로 치닫습니다.

-계급 제에 대한 배척, 정치원리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소수는 영원한 소수는 아니다.

영구적 협정으로서의 소수의 지배는 전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제도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지만 링컨은 그것이 당대의 사람들의 도덕 감정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헌법에 명시된 도망간 노예에 관한 조항과 대외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률이 각기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 그 자체가 국민의 도의심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무슨 법률이든 항상 시행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민 대다수는 무미 건조한 법적 의무만을 준수하며, 각 경우마다 소수의 사람들은 되풀이하여 법률을 어깁니다.

-내전을 각오하는 선전포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불만을 품은 국민 여러분, 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격자가 되지 않는 한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파괴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정부를 “보존, 보호 및 수호하겠다”는 가장 엄숙한 선서를 할 것입니다.

## 2. 아브라함 링컨: 연례교서(1862~)

시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에게도 불구하고 국회와 이 행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L 통과하는 불같은 시련은 명예와 불명예로 우리를 마지막 세대까지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는 연방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이것을 말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있는 우리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데 있어, 우리는 자유로움이 - 우리가 주는 것과 우리가 유지하는 것과 같이 명예로운 자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자 그리고 최상의 희망을 당당하게 구제하거나 열약하게 잃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마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따라진다면, 이 방법은 명료하고 평화롭고 관대하며, 세계는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신은 영원히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 3. 에이브러햄 링컨: 노예 해방 선언(1863)

- 이 내용은 연방을 깨려는 자들의 움직임을 분쇄하기 위한 정치행위다. 인류는 언제나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보해나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 전체에 더 이롭기 때문이다. 반연방의 노예들에게 연방이 자유를 보장한다면 반연방 진영 내의 절반은 이미 연방군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된다.

중략 - 그리고 본인은 상기 권한에 의하여,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상기 주와 주의 지역 내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자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상기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그 자유가 선언된 상기자 들에게 자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 행위를 삼가도록 명하며, 또 본인은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합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 4.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1863)

-대한민국도 게티즈버그에서 일어난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을 컨텐츠화해서 사회적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 그러나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헌납할 수도, 신성화 할 수도, 성역화 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싸운 살아있는 분과 전사한 분들이 우리가 더하고 덜 할 수 있는 미약한 힘을 훨씬 초월해서 이 땅을 성역화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나 그분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싸운 분들이 이만큼 수오하게 성취해 놓은, 아직 끝맺지 못한 일들을 위해 살아 있는 우리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위대한 과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명예로운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마지막 헌신을 다한 그 대의에 한층 더 헌신하게 되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하게 결의하며, 이 국민이 하나님의 가호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 5. 프랭클린D.루즈벨트: “네 가지 자유” 연설(1941)

-2차 세계대전 대두시의 상황으로 전선이 미국으로 확대되 미국내에서 전쟁을 벌이기보다 자유전선의 지원을 통해 유럽전선에서 파시즘을 막으려 했던 것임.

‘미 연방의 정세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할’ 헌법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주주의 미래와 안전이 우리의 국경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압도적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고 보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국방이다.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중요하다. 그 평화는 당연히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적 정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공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당파성에 구애됨이 없이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하는 총괄적인 국방에 전력을 다한다.

-루즈벨트는 네가지 자유를 천명하며 이것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원칙임을 선언함.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첫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을 예배하는 자유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셋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이것을 세상 말로 옮긴다면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도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세상 말로 옮긴다면 세계적인 군축이 철저히 추진되고, 어떠한 나라도 인접국에 대하여 물리적 침략 행위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전 세계 공통입니다.